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23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이주여성 23명이 자국의 전통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결혼 이주여성들의 설

“고향 못 가도 나눔 있어 훈훈해요”

월곡동 선교회서 각국 음식 먹으며 위로

최악의 경기 한파로 설맞이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지만, 그래도 설렘 속에 명절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고국을 떠나 낯선 한국땅에 정착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번 설날 고국을 찾을 수 없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1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사무실, 99.2㎡ 크기의 사무실은 고소한 음식냄새로 진동했다. 탁자엔 잡채와 만두, 전병, 떡국 등 명절 음식이 놓여 있었다. 아직 옛된 얼굴의 20대 이주여성들은 “만두 모양이 울퉁불퉁하다”고 꾸뻑하면서

“모두 모여앉아 만두 빚는 게 재미있다”며 밝게 웃었다.

이날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사무실을 찾은 이주여성들은 모두 23명. 출신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국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특별한 설 명절을 맞고 있었다. 이들 중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설을 맞는 이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서 낯선 한국땅으로 결혼 이주한 위(여·23·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씨는 “명절을 앞두고 고향 생각이 사람방인 선교회를 찾았는데, 우연히 한 이주여성이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자’라는 의견을

내놓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설 행사를 갖게 됐다”며 “매년 4월에 있는 캄보디아의 설이 생각나지만 한국에서 처음 맞는 설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 여의 연애 끝에 결혼, 한국으로 건너온 지 6년이 된 중국 출신 안한남(여·38·광주시 북구 동림동)씨는 설이 힘들기보다 마냥 신기하고 즐겁다. 그는 “설날 여러 친척, 친구들과 어울려 음식과 놀이를 즐기는 게 편이나 정경다”며 “다만 중국에서처럼 폭죽놀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필리핀에서 온지 4년 된 라미루이(여·24)씨는 한

국생활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여유를 보이더니 “처음에는 명절 때마다 고향이 그리워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광주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명절 때마다 이주여성들이 모여 자국의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며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향 생각이 더 나겠지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성인 60% “용산참사 경찰 책임 더 크다”

사회동향연구소 설문

우리나라의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용산 참사’에서 경찰 책임이 더 크고,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통치가 본질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가 용산 재개발현장 참사와 관련, ‘무리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격 시위를 벌인 철거민’에 책임이 있다

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한 추모행사와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목포, 광양, 화순, 광양 등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대통령의 밀어부치기식 통치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용산 참사’ 관련한 추모행사와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목포, 광양, 화순, 광양 등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연필뉴스

‘폭설 귀성길’ 사고 잇따라

설 연휴 전날인 23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귀성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2시15분께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밀재터널에서 군부대 버스 1대와 경차, 승용차 등 1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군인 등 2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50분께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

성군 백양사 IC입구(순천기점 110km지점)에서 트레일러가 전복돼 구간 통행이 1시간 동안 지연됐다.

또 새벽 5시25분께 영광군 대마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영광 IC 부근에서 정모(28)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가 제설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아 정씨가 다치는 등 이날 전남 지역에서는 20여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종행 기자 galee@

순천만 청둥오리 집단 폐사

밀렵꾼 뿌린 살충제가 원인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청둥오리 등이 집단 폐사해 순천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살충제가 직접적인 폐사 원인으로 밝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23일 “지난 6~8일 순천만 인안교와 대대포구 주변에서 폐사한 청둥오리 10여마리를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 맡겨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청둥오리 몸체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는 청둥오리를 포획하는 밀렵꾼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누군가 대량으로 청둥오리를 포획하려고 순천만 주변에 살충제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8일 순천만 인안교와 대대포구 주변에서 청둥오리 14마리와 흰뺨검둥오리 4마리 등 18마리가 폐사한 상태에서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4일까지 청둥오리 13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공직자들 설 연휴 ‘몸 조심’

기동감찰반 뇌물수수 등 집중 감찰

설 연휴기간에도 공직자들은 몸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확대 개편된 ‘공직자강 기동감찰반’이 설 연휴 중에도 감찰활동을 계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동감찰반은 연휴기간에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집중적

으로 단속하면서 소방관서의 출동태세, 행정기관의 재난 대비태세, 당직자 근무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휴 근무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필뉴스

전화사기 예방 중·고생 봉사단 모집

전남경찰, 예방활동 투입

전남 경찰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나선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전화금융사기 예방하기 위해 중·고교 학생봉사단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봉사단은 중학생이 1년에 18

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씩 사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점에서 착안됐으며, 경찰은 희망학생들을 모집한 뒤 예방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 등을 교육받고 은행 365코너 등 금융기관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신고를 하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712) 김장동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휴대전화 홈터뷰 '하루 11만원'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절집방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성인용 음성체팅을 한 모(25)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모씨는 지난 18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0절집방에서 과모(26)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 휴대전화로 음성체팅을 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모씨는 과거가 잡든 틈을 타 옆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성체팅을 즐겨 하루 만에 정보이용요금과 통화요금을 합해 11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는데, 경찰에서 “음성체팅을 잠깐 했을 뿐인데, 휴대전화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황실수설.

○경찰은 모씨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성인인증 과정에서 남긴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모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alee@

영광글비 설날맞이 직송판매 고마운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세요. 謹賀新年. 351-0094